

한국전쟁과 수원, 그 숨가빔던 열흘의 의미

절망의 사흘, 서울의 함락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웅진반도를 시작으로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이틀 후인 6월 27일 오전 중앙방송이 정부의 수원 이동을 보도하자 서울 시민들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다. 당황한 공보처장이 “국회는 서울을 사수한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거리에는 이미 피란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불과 세 시간 뒤 모든 열차 운행이 끊겼다.

6월 27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은 남행열차에 올랐고, 정부와 국회는 수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육군총참모장의 지시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다. 북한군 전차는 아직 한강에 이르지도 않은 상태였다. 다리를 건너던 피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되었고, 한강 이남에 있던 국군 주력 5개 사단의 퇴로마저 끊겼다. 서울에 남은 100만 시민은 그렇게 90일간의 북한군 치하를 맞이하게 된다. 6월 28일 개전 사흘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다.

서둔동, 전쟁의 임시 심장부가 되다

서울이 무너지자 모든 시선은 수원으로 향했다.



REDS AT SEOUL GATES!라는 헤드라인으로 6·25전쟁 발발을 알리는 1950년 6월 26일자 *SAN FRANCISCO THE CALL BULLETIN*(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한강선 방어를 지휘할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급히 편성되었지만 정작 병력이 없었다. 한강을 건너온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서둔동 중앙농업기술원(수원 박물관 제공)



1950년 6월 28일 서울에서 철수해 수원지구로 집결 중인 국군(임인식 소장)

패잔병들을 삼삼오오 재편성해 간신히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 6월 29일이였다.

이보다 앞선 6월 27일 워싱턴의 결단이 수원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미국 안보회의는 조사팀 파견과 군사 지원을 결정했고,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즉시 처치 중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한국에 보냈다. 장교 13명과 사병 2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은 그날 저녁 서둔동의 중앙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 자리)에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를 설치했다. 다음 날에는 서울에서 철수한 육군본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까지 합류하면서, 일본식 건물 몇 채가 한·미 양군의 임시 지휘본부로 탈바꿈했다.

맥아더, 수원 하늘을 통해 한강을 보다

6월 29일 오전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맥아더 장군이 한국 땅을 밟았다. 전용기 '바탄'은 무스탕 전투기 4대의 엄호를 받으며 비행했지만, 도중 북한군 야크기의 추격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바탄기는 무사히 수원비행장에 내렸고, 대전에서 날



1950년 6월 29일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과 처치 준장(국사편찬위원회 제공)



1950년 6월 29일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총사령관(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아온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주한미대사가 그를 맞이했다.

세 사람은 곧장 서둔동 지휘소로 이동해 브리핑을 받았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200만 장정을 징집해 침략을 격퇴하겠다”고 답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맥아더는 낡은 포드 승용차에 올라 영등포 한강변으로 향했다. 동양맥주 공장이 있던 언덕에선 그는 20여 분간 말없이 전장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서울 시가지, 핏빛으로 물든 한강, 그리고 지친 다리를 끌며 후퇴하는 국군의 행렬.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미 지상군 투입만이 한국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인천상륙작전을 포함한 전쟁의 반전 구상이 이날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일본으로 돌아간 맥아더는 이튿날 미 합동참모본부에 “지상군 없이는 결정적 지원이 될 수 없다.”며 2개 사단 파견을 건의했다. 수원 상공에서의 짧은 시찰이 미국의 본격적인 참전을 앞당긴 순간이었다.

오인 보고와 철수, 그리고 장안문

전쟁은 수원에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겼다. 6월 30일 오후 수원 상공을 정찰하던 미군기가 국군 병력을 적군으로 오인해 “적의 종대가 수원으로 접근 중”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올렸다. 이 한 번의 오류로 전방지휘소와 군사고문단, 대사관 인력이 통신장비를 파괴한 채 황급히 대전으로 철수해야 했다.

같은 시각 북한군은 나룻배와 수영으로 한강을 도하해 영등포까지 진출했고, 7월 3일 국군은 결국 한강방어선을 포기했다. 안양 일대에 세 겹의 저지선이 차려졌지만 북한군 전차는 하루 만에 이를 모두 돌파했다. 7월 4일 육군본부는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를 결정했다.

잔류부대는 장안문에 진지를 구축했고, 도로 차단 위해 성문을 폭파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다.



1950년 7월 1일 무개화차에 탑승한 군인과 경찰들(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사진 뒷면에는 ‘전방으로 향하는 국군’이라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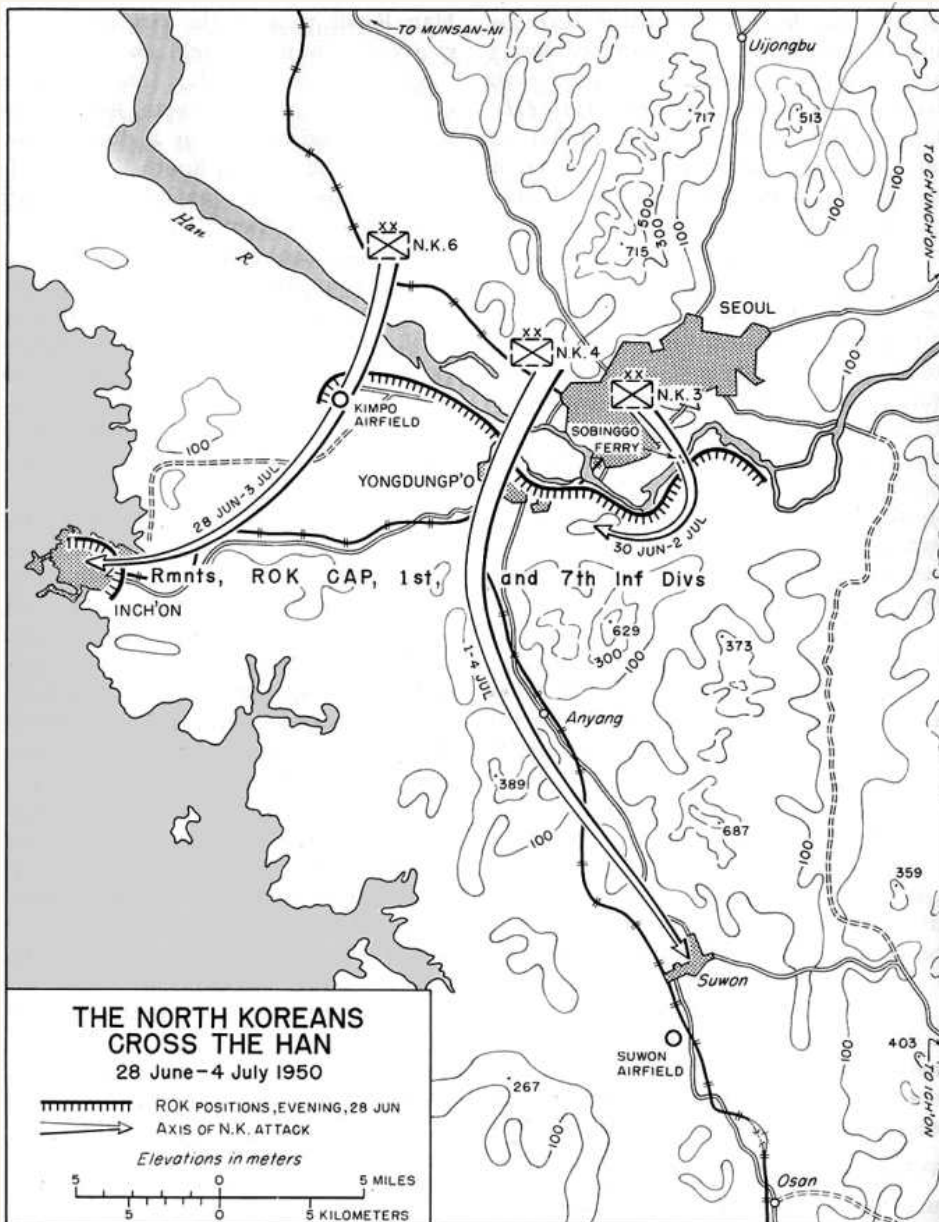


1950년 9월 파괴된 장안문

그러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이 이를 목격하고 만류했다.

“이 복문을 파괴한다고 전술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귀중한 민족의 사적을 인멸케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후일 민족의 지탄을 어찌 받을 것인가.”

그의 한마디로 폭파 명령은 거두어졌다. 하지만 장안문은 9월 미군기의 폭격으로 반파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끝내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다.



1950년 7월 4일 북한군에게 수원이 점령되었음을 알려 주는 지도

닷새의 시간이 만든 역전의 발판

7월 4일 오후 북한군 제4사단이 수원을 점령했다. 영등포에서 수원까지 40km를 단 하루 만에 내준 후퇴였다. 그러나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국군과 북한군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닷새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한강교 폭파로 흩어졌던 부대들은 이 시간 동안 수습되고 재편성되어 지연전을 펼칠 수 있었고, 미군은 증원할 시간을

벌었다.

전쟁 초반 열흘, 서둔동의 지휘소와 수원비행장, 그리고 장안문을 지나간 결정들은 단순한 후퇴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후 전개될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꾼, 수원이 써낸 또 하나의 역사였다.

글 · 홍현영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